

# 한나라 빅3, '7·8월-20만명' 중재안 반발 '경선 룰' 10일 시한 못맞출 듯

### 朴 "6월-4만명 입장 재확인" 李 "8월 개최 절대 수용 못해" 孫 "추석이후-100만명으로"

한나라당의 경선룰 문제를 놓고 대선주자들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타결 시한인 1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선준비위의 행정규 부위원장과 각 캠프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1+4 협의체'에서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경준위가 중재안을 마련해 '타율적' 합의를 시도하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권주자들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경준위의 중재안은 경선 시기와 선거인단 규모와 관련한 각 주자진영 주장의 중간선을 택한 '7·8월-20만명'.

그러나 각 캠프측은 중재안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박근혜 전 대표측에선 '시기를 문제 삼아 "특정 주자 편을 드는 경준위는 필

요 없다'며 경준위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태이다.

박 전 대표측 김재원 의원은 8일 "경준위가 당초 '9월-20만명' 카드를 검토하다가 이명박 전 시장 측에서 시기를 세계 문제 삼자 7·8월로 앞당긴 것 아니냐"면서 "특정 주자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경준위는 이미 생명을 다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측은 어쨌든 중재안 방식 보다는 차라리 현행 당헌·당규대로 6월에 4만명을 상대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기에 있어 '6월'을 선호하는 이 전 시장측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선을 무작정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시장 대리인으로 경준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형준 의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6월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여권의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후보 중심의 판을 짜려면 경선을 8~9월로 마냥 미룰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8월 카드는 절대 받을 수 없으며, 7월

#### ■ 대선주자 '빅3' 경선룰 입장

구분	시기	선거인단	후보 조기등록	중재안 (7·8월-20만명)
박근혜	6월	4만명	원칙찬성	수용불가
이명박	6월	40만명	원칙찬성	반대속 7월안 검토가능
손학규	추석이후	100만명	경선을 논의와 연계해야	수용불가

카드를 일단 캠프회의를 거쳐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선불참'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시기와 방식 모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양대 주자의 합의실제로 게임의 룰이 자신들에게 가장 불리한 현행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손 전 지사 대리인인 정문헌 의원은 "지금과 같은 중재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경준위가 중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자 간 합의실제 및 경준위 중재실제로 경선 룰이 현행방식대로 결정되면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지도부 및 양대 주자를 압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과 한컷 "졸을 서시오" 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회원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일 오후 광주 상록회관에서 한나라당 전남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지지단체인 '한국의 힘'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력 대권후보인 이 전 시장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지어 서 차례를 기다리는 회원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김홍업 보선 출마 말라"

광주·전남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반대하고 나서 범여권에서 논의 중인 연합공천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계계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홍업씨의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파다하다"며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정치상황을 이용해 국회

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김씨의 출마에 동교동 가신그룹이 나서서 것은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지역과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호남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이 권노갑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데 이어 홍업씨가 한화

### 광주·전남 52개 사회단체 촉구 범여권 연합공천 부담 작용할 듯

갑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권력의 대물림'은 김 전 대통령까지 뒤흔게 하는 일"이라며 "김씨 자신과 김 전 대통령, 동교동 가신그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목포 YM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신안포럼 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26개 단체와 광주YMCA, 광주경찰청,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광주지역 26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정운찬 "정치참여 신중 검토"

### 김한길 의원과 만나 범여권 통합추진 교감 나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통합신당모임'의 김한길 의원이 범여권 통합추진에 대해 '교감'을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김한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광화문 부근에서 정 전 총장과 만나 그의 정치참여 문제를 현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 개최사실을 정 전 총장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무엇보다도 범여권의 기대주와 신당추진 세력의 주도자가 자리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

초미의 관심사인 정 전총장의 정치참여 여부는 미지수로 남겨졌지만 범여권 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파수'를 맞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먼저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 추진은 의미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 중심의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하다는 데 생각이 같았다"고 전했다.

또 기성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데도 뜻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정책노선을 '중도개혁'에 맞추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듯한 분위기다. 김 의원은 "정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경제 제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생각이 같았고 정 전총장이 말하는 소위 중도개혁 노선과도 뜻이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언으로만 보면 두 사람은 3일 회동에서 '비(非) 열린우리당', '기득권 포기', '중도개혁'이라는 3대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총장은 정치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결심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빨리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게 나라에 좋다고 본다"며 "다만 본인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 전총장이 대학교수로서 강의를 맡고 있어 중도에서 그만두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말해 신학기가 끝날 무렵인 6월초-추석 이후 '결단'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日 도쿄 세계 최고 부자 도시

### 뉴욕·LA·시카고 順... 서울은 20위

전 세계 대도시 중 일본 도쿄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가진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전 세계 10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전체 인구가 생산하는 총 수입을 따졌을 때 도쿄는 2005년 1조1천910억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7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05년 구매력평가기준 국내총생산(GDP)을 계산한 결과 도쿄에 이어 미국의 대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가 상위권인 2~4위에 포진했다. 유럽권

에서는 프랑스 파리가 5위, 영국 런던이 6위에 각각 올랐다. 서울은 2천180억달러로 20위의 경제력을 가진 도시로 나타났다. 신흥경제국 도시로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8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13위), 브라질의 상파울루(19위), 러시아의 모스크바(25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30위)가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15년 후인 2020년에도 도쿄는 구매력평가기준 예상 GDP가 1조6천200억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의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매력평가기준 GDP로 본 세계 톱 10 대도시는 도쿄에 이어 뉴욕(2위), 로스앤젤레스(3위), 런던(4위), 시카고(5위)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0년 구매력평가기준 GDP가 3천490억달러로 세계 17위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가 될 전망이다. /런던=연합뉴스

## 국립대 법인화 입법 예고

### 내달 국회 제출... 대학들 반대 난항 예상

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법인화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끝남에 따라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총·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총·학장

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무회의와 교수 중심이었던 의사결정 구조도 학내의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뀐다.

이사회는 정부 추천 2인(교육부, 기획예산처)을 비롯해 법인 소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 추천 1인, 총동창회장 또는 동창회장 추천 1인, 산업계·경제계 인사 등 학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결산, 재산 관리, 대학 조직 신설·폐지, 교원 및 직원 인사 등 법인의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 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을 법인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지금 중국어 배우실도 수준이세요? 물어보세요!

**매월 초 개강**

- ▶ 초급반 (1인1교)
- ▶ 중급반 (1인1교)
- ▶ 고급반 (1인1교)
- ▶ 회화반 (1인1교)
- ▶ 특강반 (1인1교)
- ▶ 특강반 (1인1교)
- ▶ 특강반 (1인1교)

총학비 4만원 학과비 2만원 TEL: 062-233-9562

**리틀자이니 中国語学院**

CANADA SOUTH BAY COLLEGE OF TOM

#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인 한국인이지만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고교수업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대 환영

1. 1인1교, 2. 1인1교, 3. 1인1교, 4. 1인1교, 5. 1인1교, 6. 1인1교, 7. 1인1교, 8. 1인1교, 9. 1인1교, 10. 1인1교

문의: 입학실 062-233-9562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 ☎ 0695-313-1111